

죽음의 외주화 정책이 30년 통신외선공을 죽였다

✎ 강현주 기자 | ⓒ 승인 2021.07.15 13:39

|| KT협력업체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서 KT통신외선공 김OO조합원이 400킬로그램이 넘는 케이블드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노동조합은 평소 위험한 작업환경을 지적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비용 문제로 이를 거부해왔고 예견된 죽음을 방지했다.

공공운수노조가 7월15일 KT 대구지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T협력업체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고인을 비롯한 작업자들은 7월 14일 아침 06:30 경 KT대구본부 흥해지점 앞마당에서 차량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에 있는 케이블드럼을 트럭으로 옮기는 중이었고, 이동 중인 케이블드럼 아래로 고인이 들어가는 순간 묶어놓은 케이블드럼이 힘없이 풀리며 고인은 그 자리에서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죽어갔다.

동료들에 따르면 다른 업체 현장에서는 케이블드럼을 이동하기 위해 철제 고리와 철제 와이어를 만들어 크레인에 연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발생 현장에서는 그동안 밧줄로 임시로 매듭을 만들어 케이블드럼을 이동해왔다.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KT상용직대구경북지회는 최근 사측과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위험한 작업환경을 지적하며 “중량물작업 안전펜스 설치”, “안전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원천

사에서 책정된 비용이 없다는 핑계로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고인이 소속된 대중통신건설(주)는 <KT 2021년 북포항, 울진, 영덕 지역시설 공사> 협력업체로 이번 공사의 시행처는 KT대구본부다. 고인은 KT통신의 선공으로 30여년간 일을 했던 베테랑으로 전국의 KT공사현장에서 일해왔으며 이번 공사를 위해 올해 4월 대중통신건설(주)에 입사했다. 베테랑 작업자들이 현장의 위험요소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즉각 개선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시공사인 협력업체뿐 아니라 시행처인 KT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받아온 KT 하청 노동자들의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사고의 주범이다. KT건물 앞마당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에 대해 KT 구현모 대표이사는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월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중통신건설은 50인 이하 사업장이라 시행이 3년 유예된다. 산재사망 사고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산재를 줄일 수는 없다. 또 어제 산업안전보건본부 개소식을 진행하며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으나 본부 개소식 하루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노동자가 죽었다.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한 가족의 세계가 산산히 부서졌다. 이 죽음 앞에 과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하나 없다.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노동자를 죽였다. 하청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김000 조합원의 명복을 제대로 비는 것은 공공운수노조가 다시는 작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투쟁하는 길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현주 기자 1000woman@hanmail.net